

# 1분기 해외 카드 사용 50억달러 첫 돌파

### 해외 여행객 늘고 원화 강세로 해외 지출 늘어 국내 찾은 外인 카드 사용 20억7300만달러로 ↓

올 1분기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여행 증가로 카드 해외사용액이 또 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18년 1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에 따르면 올 1분기중 국내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액은 50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4분기(45억5000만달러)보다 5억2000만달러(11.4%) 증가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로 5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화로 환산(1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 1072.3원)하면 5조4366억원 정도다.

해외 여행객 증가로 해외에서 쓰는 카드값도 당연히 늘어난 추세이지만 지난해부터 유독 가파른 증가세가 가파르다.

지난 2015~2016년 전년동기대비 8.7%, 7.8%씩 늘어났던 카드 해외사용액은 지난해 19.7%의 증가율로 훌쩍 뛰었다. 올 1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25% 뛰었다.

이는 1~2월 겨울방학과 설 연휴

등으로 내국인 출국자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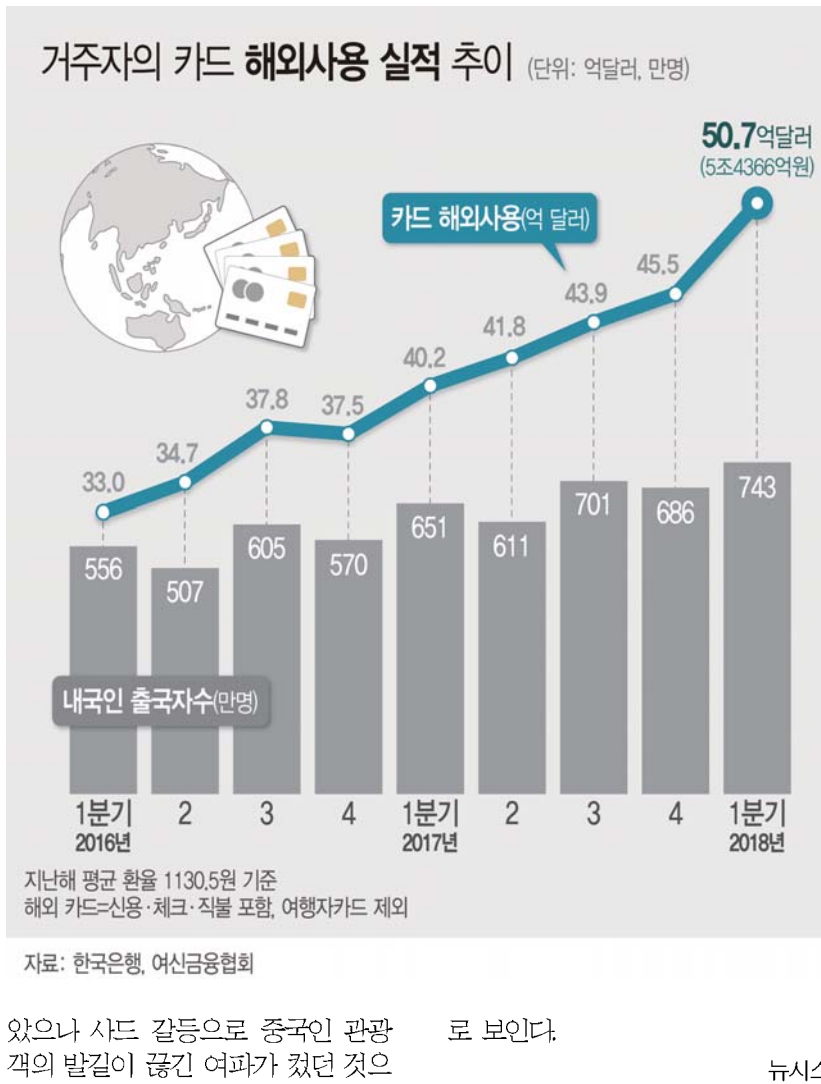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1분기 내국인 출국자수는 743만명으로 전분기(686만명)보다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원화 강세가 이어지며 해외로 나간 여행객들이 지출을 늘린 영향도 크다.

해외에서 사용된 카드 숫자도 1643만8000장으로 전분기(1462만2000장)보다 12.4% 늘어났다. 그러나 카드 한장당 사용금액은 평균 308달러로 전분기(311달러)보다는 0.9% 축소됐다.

이와 달리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카드사용액은 지난해에 이어 감소세(전년동기대비)가 계속됐다.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실적은 20억7300만달러로 전분기(20억9600만달러)보다 1.1% 줄었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15.5% 급감했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를 찾



## 에어컨 구매, 점점 빨라지고 멀티형 늘어

### 올해 2월부터 에어컨 구매 급증 스탠드+벽걸이 제품의 매출 1위

에어컨 구매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고품형 제품 구매가 늘고 있다.

티몬은 최근 3년 5개월간 에어컨 카테고리 매출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티몬 매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4월부터 에어컨 판매가 상승되기 시작했으나 지난해에는 이 시점이 3월로 당겨졌다. 올해에는 2월부터 에어컨 판매가 급증했다. 점차 에어컨 구매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2월 에어컨 매출은 지난해 동기대비 548% 증가했고 3월에도 동기 대비 257% 상승했다.

구매하는 에어컨 제품도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의 경우 벽걸이 에어컨의 매출 비중이 69%로 가장 많았다. 올해에는 벽걸이가 32%로 감소하고 2IN1 멀티형(스탠드+벽걸이)제품의 매출 비중이 42%로 1위를 차지했다.

에어컨 가격대별 매출 비중을 보면 지난해에는 50만~100만원 미만 제품이 50% 비중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150만원 이상 고가 제품은 26%, 100만~150만원 미만 제품이 17% 등의 비중을 보였다.

올해의 경우 150만원이상 고가 제품이 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100만~150만원 미만으로 30%의 비중을 보였다. 지난해 1위였던 50만~100만원미만 제품은 16%로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티몬은 이러한 구매 에어컨 유형 변화에 대해 미세먼지 이슈로 야외활동이 위축되고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공기청정, 제습 등 다양한 기능을 모두 갖춘 제품을 찾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해마다 여름 무더위가 길어져 집에서도 개별 공간마다 에어컨 설치의 필요성이 높아진 점도 멀티형 에어컨 판매를 높였다.

티몬은 오는 22일까지 '에어컨 초특가대전'을 진행하고 최대 37%까지 할인 판매한다. LG휘센 멀티에어컨을 기본설치비를 포함해 151만원부터 판매한다. 삼성 무풍에어컨(멀티)은 187만9000원이다. 유니아의 벽걸이 에어컨은 30만9000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

뉴스스

## LG 'G7 씽큐' 오늘 국내 출시...자급제도 공급



해 주는 '인공지능(AI) 카메라' 등을 탑재했다.

LG전자는 구매 고객에게 'BTS 팩', '넥슨 카이저 팩' 등 네 가지 액세서리 패키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1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기프트팩' 앱에서 LG 페이로 결제하면 된다.

이동통신 3사와 LG 베스트샵 등 자급제 채널 통해 출시  
출시 기념 구매 혜택, 최고 수준 중고 보상 프로그램 제공

15만원 상당 넥슨 카이저 게임 아이템 건강 관리 가전 5종(LG 퓨리케어 정수기,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LG 트롬 스타일러, LG 힐링미 안마의자, LG 트롬 건조기)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중고폰을 보상하는 'LG 고객 안심 보상 프로그램'도 처음으로 시행한다.

브랜드와 상관없이 기존 사용하

던 스마트폰이 프리미엄 제품이라면 G7 씽큐 구매 시 최고 수준의 중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원만 들어오면 최대 18만5000원까지 보상하며, 사용하던 스마트폰의 개인 정보 유출 시 최대 1억원을 보상하는 보험도 제공한다.

단말기 구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이 분리된 자급제폰은 LG 베스트샵, 전자랜드, 하이마트 11번가 등에서 살 수 있다.

자급제폰을 구매할 경우 25% 선택약정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월

1~2만원 수준으로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LG전자 한국모바일그룹장 이상규 부사장은 "누구나 늘 쓰고 있는 핵심기능들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했다"며 "G7 ThinQ를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차원이 다른 편리함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 4월 자동차 생산·수출 모두 감소

지난달 자동차 생산과 수출 모두 감소한 반면 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해외 재고조정과 수출 감소에 따른 생산량 조절 등으로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월대비 7.4% 줄어든 38만4156대였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는 SUV(싼타페, 코나) 중심으로 내수가 늘었으나 수출 감소에 따른 생산량 조절로 4.7% 줄었다. 한국지엠은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30.7%나 생산이 감소했다.

수출은 신차 출시를 앞둔 기존 모델의 수출 감소와 미국지역 재고 조정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감소한 22만273대를 기록했다.

국내 판매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한 16만742대를 판매했다. 국산차는 1.4% 증가한 13만3875대를, 수입차는 24.4% 증가한 2만7167대 판매를 기록했다.

현대는 신형 싼타페의 본격 출시 영향 등으로 5.7% 증가했다. 기아도 신형 K3/K9, 카니발 출시 영향 등으로 14.9% 늘었다. 한국지엠은 대표 차종인 스파크, 말리부 등이 부진을 겪으며 54.2% 감소했다.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판매 호조로 전년 동월대비 14.2% 증가한 8281대를 판매했다. 수출은 니로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수출 감소로 11.4% 감소한 14971대를 수출했다.

뉴스스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